

봄을 맞아 공연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광주·전남에 클래식 바람이 분다. 광주 지역은 향유 인구가 적어 다양한 클래식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터라 해외 연주자들의 공연은 클래식 팬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호암아트홀, LG 아트센터 등 서울의 대표적인 공연장에서 공연을 가질 연주자들은 광주에서는 관객들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소규모 무대에서 공연을 선사한다.

# 봄 봄... 클래식 향연

18일 에드워드 아우어 & 아마넷 스트링 콰르텟 광주 공연  
20일 피아니스트 벤 김...금난새 유라시안 필 순천 무대도



피아니스트 에드워드 아우어(위)와 플로리다 국제대 현악 4중주단 '아마넷 스트링 콰르텟'.

소풍의 음악을 들려줄 피아니스트 에드워드 아우어 & 아마넷 스트링 콰르텟은 서울 호암아트홀(19일),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25일) 공연에 앞서 광주를 찾는다.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 드림아트홀.

특히 이번 공연은 '피아노의 시인' 소풍의 피아노협주곡을 오케스트라나 챔버가 아닌, 현악 4중주단과 협연 무대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에드워드 아우어 인대어나 주립대 교수는 미국인 최초로 소풍 콩쿠르에서 일정한 후 다양한 연주와 녹음 작업을 통해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불린다. 또 플로리다 국제대 현악 4중주단인 아마넷 스트링 콰르텟은 도쿄국제음악콩쿠르 등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룹이다.



재미교포 피아니스트 벤 김

연주회 프로그램은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 F단조', '피아노 소나타 1번 E단조', 라벨의 '현악 4중주곡 F장조' 등이다. 티켓 가격 R석 7만원, 학생 3만원, 문의 062-651-4117.

2006년 독일 최고 권위의 뮌헨 ARD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지난해 내한 공연을 통해 클래식 팬들을 사로잡은 재미교포 피아니스트 벤 김은 오는 20일 광주 상무지구 음악감상실 한울림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지난해 피아니스트 에드워드 아우어 & 아마넷 스트링 콰르텟은 서울 호암아트홀(19일),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25일) 공연에 앞서 광주를 찾는다.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 드림아트홀.

이번 연주회의 프로그램은 모차르트의 '소나타 C장조 K.275', 브람스의 '소나타 3번 F단조', 베토벤의 '론도 C장조 op.51' 등으로 서울 LG아트센터(23일) 프로그램과 같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375-2214.

지휘자 금난새가 이끄는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8일 오후 7시 순천문화회관 무대에 선다.

순천문화회관이 '신춘음악회'로 마련한 이번 공연에서 유라시안 필하모닉, 교향곡,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1부에서는 가곡 '꽃구름 속에'와 '남이오시는지', 오페라 '라보렘' 중 '그대의 찬송' 등을 소프라노 서할란, 테너 나승서와 협연한다.

2부에서는 브람스의 '교향곡 제1번'을 선사한다. 티켓 가격 S석 2만원, A석 1만5천원, B석 1만원, 문의 061-749-3516.

이번에 '사계'로 유명한 이탈리아 실내악단 이 무지처도 18일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클래식 팬들을 만난다. 레퍼토리는 '사계', 파가니니의 '베니스의 축제' 등이다. 티켓 가격 7만원, 6만원, 5만원, 문의 062-650-304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역대 비엔날레 작가와 '만남'

내달 1일 상설홍보자료관 개관...지역작가 전시도

역대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최근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4월1일 상설 홍보자료관(1천765㎡) 개관을 기념해 이날부터 14일까지 '역대 광주비엔날레 지역참여 작가 근작전'을 주제로 개관전을 갖는다.

참여 작가는 우재길(1회), 신경호(1회), 손봉채(2·6회), 강운(3회), 박문종(4회), 조근호(5회), 신철호(5회), 안유자(5회), 정환을(5회), 정선희(5회), 박태규(5회), 김숙민(5회), 진시영(6회), 정기현(6회) 등 20명이다. 작가의 작품세계 변화를 이해하기 쉽도록 작가들의 최근 작품과 비엔날레

레 출품작을 함께 전시하고, 작품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내건다.

또 역대 광주비엔날레 수상작과 기증작 8점도 상설 홍보자료관에 전시된다. 지난 1995년 제1회 비엔날레 대상작인 알렉시스 크초의 '잊어버리기 위하여'와 백남준의 '고인돌'(1995년), 임옥상의 '차나 한 잔 합시다'(2004), 지터슈 칼라트의 '컨디션 어플라이'(2006) 등도 함께 선보인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상설 홍보자료관에는 다목적전시실, 자료실, 세미나실 등이 갖춰져 있어 지역 미술계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임옥상 작 '차나 한 잔 합시다'

# 대산 청소년문학상 공모

# 예지원, 예절·다도 강좌

대산문화재단은 전국 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16회 '대산 청소년문학상'을 5월30일까지 공모한다.

희망자는 시·시조는 5편, 소설의 경우 원고지 60장 내의 1편과 학교장 추천서 또는 소속단체장 추천서를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대산문화재단은 80여 명의 수상 후보를 선발해 충남 천안시 계성원에서 청소년 문예캠프를 연 뒤 최종 수상자를 선정, 총 8천여 만원의 장학금을 시상한다. 문의 홈페이지(www.daesan.or.kr) 02-725-5420.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우리의 차문화와 다도·다례 등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사)예지원 광주지부(원장 이영애)는 예절·다도 강좌를 개설, 회원 모집한다. 수업은 오는 18일부터 7월까지 매주 화요일(오전 10시)과 토요일(첫째·셋째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누문동 예지원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생활예절' '우리 옷 바로 알기' '인사의 종류와 하는 법' '차생활의 입문' '생활다례 이론과 실습' 등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됐다. 17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 접수. 문의 062-526-3325.



# 문화계 '코드 악순환' 끊을때

"프랑스 외교는 좌(左)도, 우(右)도 아니다. 급변하는 세계에서 프랑스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1968년 이후 줄곧 연대의식과 진보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 왔다. 외무장관으로서 프랑스 외교에 이런 가치를 불어 넣었다."

지난해 5월 프랑스 외무장관에 발탁된 베르나르 쿠슈네르(68)가 르몽드지 1면에 낸 기고문의 일부다.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초대 내각명단을 발표하자 프랑스 매스컴들은 쿠슈네르가 이자기로 도배를 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좌파의 거물 정치인을 측근으로 앉히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였기 때문이다.

청년시절 쿠슈네르는 파리 주재 미 대사관 앞에서 붉은 잉크병을 던지며 미 재독주자를 저항한, 좌파 중의 좌파였다. 특히 그는 지난해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 후보인 세골렌 루아얄을 대놓고 지지해 사르코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그런데 정작 사르코지의 파격인사에 발끈하고 나선 이들은 좌파진영이었다. 인도주의 의사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 창설자인 쿠슈네르가 우파 대통령의 품에 안기자 그의 추종자들은 "있을 수 없는 배신"이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좌파진영의 공세가 갈수록 거칠어지자 급기야 쿠슈네르는 르몽드지 1면에 "나는 왜 장관직을 수락했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사르코지가 코드로 치자면 '극과 극'인 쿠슈네르를 외무장관에 발탁한 이유는 무엇일까? 명분 보다 실익을 중시한 실용주의(實用主義) 때문이다. 비록 정치적 이념이 다르더라도 '국경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적극적인 외교 정책에는 두 사람의 코드가 일치한 것이다. 프랑스의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쿠슈네르야말로 사르코지의 진정한 '파트너'였던 셈이다. '사르코지-쿠슈네르' 콤비는 오랫동안 소 담보(?)해온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작으로 국제외교무대에서 프랑스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참여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렸던 '코드인사'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2일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문화예술위원장 등 문화부 산하 6개 해당 단체장들의 거취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유 장관의 지적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국정운영에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능력이나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색깔을 물리다'는 이유로 법적 임기가 보강된 문화계 단체장들을 인위적으로 물갈이하겠다는 것은 독신이나 다를 없다. 더군다나 다양성이 생명인 문화계에서 권 거르기를 조정하는 것은 또 다른 '패거리주의'의 변이다. 이는 출범 초기부터 이념을 초월한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도 정면 배치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속적(宿敵)도 끌어안는 사르코지의 실용주의가 새삼 커보이는 요즘이다.

<문화생활부자> jhpark@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흥행은 시간 보냅니다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로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원도시영 영화시영 • 예매: www.joyabo.com / 1588-7941	색깔있는 영화시영 • www.cinuse.com /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 www.mo12.co.kr / 1588-9101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kr •
<b>메가박스</b> 구.런던역사거리 ♥예매1544-0600	<b>엔터 시네마</b> 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b>컬럼버스 시네마 상무점</b> 상무점 (상무병원과 아트시) 해남점 (무역회관 뒷편)	<b>씨너스 전대</b>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b>무등극장</b> 총장로 1가 ☎ 232-9106	<b>제일 시네마</b> 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p><b>M관 10,000 BC (15세) 최고급관</b></p> <p><b>2관 추격자-디지털 (18세)</b></p> <p><b>3관 텐티지포인트 (15세)/27번의결혼리허설 (15세)</b></p> <p><b>4관 바보 (12세)/마이뉴파트너 (15세)</b></p> <p><b>5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b></p> <p><b>6관 추격자 (18세)</b></p> <p><b>7관 마이블루베리나이즈 (12세)/허밍 (12세)</b></p> <p><b>8관 10,000 BC (15세)</b></p> <p><b>9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b></p>	<p><b>1관 마이뉴파트너 (15세)</b></p> <p><b>2관 27번의 결혼리허설 (15세)</b></p> <p><b>3관 바보 (12세)</b></p> <p><b>4관 텐티지포인트 (15세)/어툰먼트 (15세)</b></p> <p><b>5관 추격자 (18세)</b></p> <p><b>6관 주노 (12세)/람보 (18세)</b></p> <p><b>7관 10,000 BC (15세)</b></p> <p><b>www.entercinema.co.kr</b> * 넓고 편안한 국내-옥외 주차장 300대 *</p> <p>•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p>	<p><b>1관 허밍 (12세)</b></p> <p><b>2관 마이블루베리나이즈 (12세)/텐티지포인트 (15세)</b></p> <p><b>3관 바보 (12세)/추격자 (18세)</b></p> <p><b>4관 추격자 (18세)</b></p> <p><b>5관 연을 쫓는 아이 (12세)</b></p> <p><b>6관 마이 뉴 파트너 (15세)</b></p> <p><b>7관 10,000 BC (15세)</b></p> <p><b>8관 27번의결혼리허설 (15세)/집결호 (12세)</b></p> <p><b>9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b></p> <p><b>10관 10,000 BC (12세)</b></p> <p>* 호남 최대 주차장 * 예매심야 상영합니다</p> <p>1588-7941 상영시간표 방문 -11시 or 2번 - 1번</p>	<p><b>1관 마이 블루베리 나이즈 (15세)</b></p> <p><b>2관 27번의 결혼리허설 (15세)</b></p> <p><b>3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b></p> <p><b>4관 허밍 (12세)</b></p> <p><b>5관 마이 뉴 파트너 (15세)/ 바보 (12세)</b></p> <p><b>6관 추격자 (18세)</b></p> <p><b>7관 10,000 BC (15세)</b></p> <p>*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p> <p>•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녹화 사무시(모바일-캐비넷)</p> <p>ARS 전화예매 <b>1544-0070</b></p>	<p><b>1관 마이뉴파트너 (15세)</b></p> <p><b>2관 텐티지 포인트 (15세)</b></p> <p><b>3관 10,000 BC (15세)</b></p> <p><b>4관 10,000 BC (15세)</b></p> <p><b>5관 추격자 (18세)</b></p> <p><b>6관 바보 (12세)</b></p> <p><b>7관 27번의 결혼리허설 (15세)</b></p> <p><b>8관 마이베리나이즈 (12세)/집결호 (12세)</b></p> <p><b>9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2세)</b></p> <p>*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암) 3시간 무료주차</p> <p>• 명품스 생활민을 위한 전용구비면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p> <p>인터넷 예매 문의 <b>1588-9101</b></p>	<p><b>1관 10,000 BC (15세)</b></p> <p><b>2관 허밍 (12세)</b></p> <p><b>3관 바보 (12세)/마이블루베리나이즈 (12세)</b></p> <p><b>4관 추격자 (18세)</b></p> <p><b>5관 스텝업2-더스트리트 (15세)</b></p> <p><b>6관 마이뉴파트너 (15세)/27번의결혼리허설 (15세)</b></p> <p>*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p> <p>ARS 전화예매 문의 <b>227-1960</b></p>